**삿0411 Note**

**모세의 장인/호크마 주석**

▶ 모세의 장인 호밥 –

성경 상에서 혼란을 일으켜 주기 쉬운 구절이다.

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'르우엘'(출 2:18;민 10:29) 또는 '이드로'(출3:1;4:18:18:1)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.

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르우엘이 본명이며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 된 후에 얻은 공식 존호(尊號)라고 주장한다.

그러면 '호밥'은 누구인가?

이에 대해서 대개의 학자들은 모세의 처남인 것으로 본다.

그 근거는 장인'과 '처남'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모두 동일한 '호텐'(\*)이기 때문인데

상당히 신빙성이 있다.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민 20:29 주석을 참조하라.

▶ 자기 족속을 떠나 -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 후 유다 지파의 경내에서 거주했다(1:16).

그런데 헤벨은 그 가족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납달리지파의 경내인 '사아난님 상수리 나무' 곁으로 이주했다.

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이스라엘의 압제자 하솔 왕 야빈과 손을 잡았다(17절)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러한 헤벨의 아내를 들어 쓰사 시스라를 죽였으니 인간이 미처 헤아리기 어려운 깊고 오묘한 섭리를 잘 드러내 준다.